



내 인생의 참스승 <하>

우선주 (43·서울 봉천동)

“과거가 없었다면 현재의 나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에 있었던 일이 과거에서 미래, 현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이 순간 하나의 현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도 과거, 미래, 현재라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과거가 지나간 것이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졌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과거의 미래인 지금 내가 어떤가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다. 공생선원 주지스님의 말씀과 다를 없었다. 그리고 몸서리치게 싫어진 3년 조금 넘는 나의 지옥같은 삶이, 이제 내게 감사함으로 남아있다.

그런 뼈아픈 일을 겪지 않았다면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그저 태어나 윤회의 바퀴에 굴러 다녔을 텐데.

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금함 따윈 없다.

“인구에 대한 응보는 꼭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행이라 하지만 그것은 언젠가 지었던 자신의 업입니다. 공을 던지면 반드시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선업이든 악업이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 또 전생의 업을 지금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모든 것을 순응하고 그 자리에 맡기고 지켜보십시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모든 공덕은 내가 낮아지고 죽어야 그 곳으로 모입니다. 흐를 수 없는 물은 썩어버립니다.”

나는 선원에서 조금은 많은 일을 한다. 사람들은 어쩔 그리고 봉사 잘 하느냐고 칭찬을 해주지만 그 말을 들으면 나는 부끄럽다. 누구를 위하기 보다는 나를 위함이 더 크다. 주지스님께서 알려주신 ‘돌아옴’의 이치를 나는 정확하게 알기에 늘 감사하고 즐겁다.

지난 처제했던 날들을 함께하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보아준 남편과 밝게 자라준 아들에게 너무도 감사하다. 나는 한번도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단지 주인공에게 “주인공! 당신이 인연 지어준 가족이잖아. 나의 가족이지만 또한 당신의 남편이고 아들이잖아. 당신과 돌이키지 않아.” 그러곤 말겨늘었다.

지금 나의 아이는 중3이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불쌍함을 보면 가슴 아파하고 울지 못함을 보면 분노할 줄 아는, 정치 사회적인 일도 논할 줄 아는 아이로 자랐다. 1년 일찍 학교에 들어간 데다 외동아들로 자라 이기적인 데가 있어 친구도 없었는데, 이제는 늘상 친구들이 찾는 호감가는 아이로 자라났다. 성적도 상위권이고 학교통지서에 있는 생활면에는 통솔력 있고 협동심이 강하다고 써 있으니 정말로 감사하다.

남편의 사업도, 남들은 요즘이 IMF관리체제 때보다 더 어렵다 하지만 두 번의 사업실패 경험에 있어 사인지 직원들도 성실하고 거래처도 많이 늘어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다.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는 것이 없다. 때로는 나의 숨소리조차 감사하다. 지금도 가끔씩은 마음의 병이 찾아오곤 한다.

꼭 막힌 밀폐된 공간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과 그래서 숨이 터질 것 같은 답답함과 복받치는 슬픔과 외로움이 나를 흔들어 놓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두렵지 않다. 나는 그 자리의 고유함을 맞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를 흔들어 놓아도 의지할 곳은 오직 그 자리 그곳이란 믿음을 확고히 하게 한 가르침의 한 모습이기에, 마음을 가다듬고 자리에 고요히 앉아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놓는다.

나의 스승이신 스님은 말씀하신다.



그림 · 김홍인

나를 포기않고 지켜준 남편과 아들에게 감사 그냥 말기니 편안...봉사활동 열심

“이 세상 무생, 유생의 만물은 나를 위해 존재하며 스승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의 스승이라 말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님께선 한번도 당신 공부 자랑함이 없으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믿음입니다. 믿고 놓고 지켜보는 것이 그것만을 알려 드릴 뿐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믿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해 보십시오. 아기가 엄마를 믿듯이 그러면 꼭 상봉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주인공이 나의 스승일 지라도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 스승 무자 스님에 대한 감사함을 어찌 말로 다 하겠는가? 수도 없이 의심할 때마다 체험담을 들려주시며 이런저런 비유를 들어 자상하게 깨우치신다. 만개의 입이 있어 감사함을 표현한들 족할까?

무자 스님은 재작년 조계사를 떠나 서울 쌍문동에 공생선원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재가불자들에게 마음법을 포교하고 계신다. 밖으로 뻗어있어 내가 있는 마음을 내 안에서 찾으라고 항상 말씀하신다.

“남에게 달라고 비는 것은 거저나 하는 말입니다. 관세음도, 지장도, 문수도, 보현도 다 내 속에 있는 자성불 안에 있어 작용에 따라 나를 뵈입니다. 형상들은 내 마음의 표현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실천이 없는 깨달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구보리와 화해중생은 돌이 아닙니다. 깨달음보다 더 힘든 것은 깨달음을 앞세운 실천입니다. 돌 아닌 돌로 실천을 해야만 업식을 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스승같이, 아버지같이, 친구같이 늘 놀라게 되어주시는 스님께 감사드릴 뿐이다.

가만히 눈감으면 떠오르는 선원이나 공안간이 그저 그림자. 특히나 언니 같고 스승 같기도 한 보살님이 선원의 도반들이 그저 그림과 그림자.

늘 힘들었던 시절을 되새기며 처음 조계사에서 좌선하던 그때의 초발심으로 돌아가 정진하며 살고자 한다. 인연있는 도반이 나 불자들이 마음공부의 깊은 도리를 접하고 참다운 참선수행의 길로 접어들길 기원한다. (끝)

킬레이 수행일기 <상>



김연수 변호사

삶의 근본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야 누군들 다르리요.

하지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오로지 공부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편한 생활을 찾을 수 없었던 나는 오로지 학교 공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고등학교를 거쳐서 법대에 진학하게 되었고, 정해진 대로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슝 돌릴 틈도 없이 방위병으로 근무해야 했고, 사법연수원 2년 과정을 거쳐 1992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변호사 업무란 것이 하루 종일 상담과 서류 작성에 매달려야만 하는 일이었고, 진작부터 해결하고 싶었던 생사 문제는 뒷전으로 밀어놓아야만 했다. 틈틈이 책을 보았지만 워낙 사법시험 공부에 지들었던 나에겐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던 차 2002년 가을, 묘봉 스님을 뵈게 되었다. 정말로 인생은 우연의 연속인가? 아니면 이 우연마저도

나이지만, 승속의 차별상을 심어주고 복을 구하는 것이 불교의 모든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지금 우리 불교가 시급히 정리해야 할 것은 무당 불교, 금전 불교이다. 무당이나 하는 것들을 ‘큰스님’이라는 분들이 거리낌 없이 행하고, 교회 키우듯 절을 크게 짓고 불상을 크게 세우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모습을 볼

묘봉 스님의 ‘육조단경’ 법회 매주 참석 회두받고 정진하며 불교 새롭게 인식

이미 정해진 것인가? 아이들의 과외 선생님이었던 청백안 보살이 견네준 <육조단경>을 읽어 가는 순간, ‘아! 바로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곧 청백안 보살의 안내를 받아 대 전서 서구 과정중에 있는 국은사에 가서 스님을 친견하였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육조단경> 법회에 참석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금요일에는 약속에 파문해서 지냈었는데, <육조단경> 법회에 참여한 뒤로 그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된 것이다. 물론 나로서도 금요일 저녁에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일이었으면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았으리라.

지난해 9월 5일부터는 새벽 3시에 일어나 국은사로 가서 2시간 동안 참선을 했다. 그리고 동시에 스님으로부터 회두를 받아 참구하였다. 회두를 하나 하나 깨뜨려나가는 동안 얻는 희구는 표현할 길이 없다. 이제까지 신비로운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불교를 접해왔던 잘못이 확연히 정리되었다.

우리 불교 전체의 잘못된 모습의 하

마다 불교의 본 모습이 아님을 절감하고 있다. 회두 하나 제대로 깨뜨리지 못하면서 다라니 업불이나 강조하고, 달리 공부하는 이들을 백안시하는 모습, 오로지 자기 공부만을 가르치지 않고 큰스님에게나 매달리게 하고 나아가서는 밥그릇 싸움에 매일 같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모습은 언젠가 사라질 것인가?

그렇다. 불교는 자기 자신이 하는 공부이다. 절을 크게 짓는다고 하여 깨달음을 이룰 수 없고, 방생을 많이 하겠다고 하여 극락에 갈 수도 없다. ‘내가 곧 부처’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항상 비굴하게 부처에 매달리며 부처에게 빌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일에 매달리다가 지옥에 떨어지리라. 머리 깎았다고 출가한 것이 아닐진대 어찌 나를 낮춰 허깨비 따라 다니는 일에 정념을 쓰는 지옥행 보시를 할 것인가?

자기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남에게만 눈을 돌리거나, 헛된 계율에 묶여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게을리한다면 공부해도 도로아미타불이요, 쌓아도 지옥행 예약 뿐이리라.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풍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교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인력(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uswhy@buddhapia.com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에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않습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 고성능 무선마이크
- ▷ 각종 마이크 판매
- ▷ 법당전용 스피커

바구니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 코 음 향 연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불 전 함

가격 수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털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북 043-647-2378, 011-467-1472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흥천 연화사

아미타 대불 성지순례

동양최대 아미타 대불
(높이:36m 아미타 12층 높이)

부처님 몸으로 7층까지 올라가면서 부모은중경·극락도·지옥도·관람 7층에 올라가면 부처님 몸안에 미타삼존을 범람이 있습니다

1층에 열두 분 부처님을 한자리에서 친견합니다.

- ▶ 대형주차장완비
- ▶ 점심공양 가능
- ▶ 입장료 무료
- ◆ 주위 명소 : 흥천온천, 천년고찰 수려사

● 찾아오시는 길

연화사

● 매표 : 초하루 및 보름 (조계사 앞 관광버스 출발)

www.yhs108.com

강원도 흥천군 북방면 북방1리 664번지 연화산 연화사
전화 : (033)433-1815, 433-2009 팩스 : (033)433-5206

사주학특강반모집

매주 수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 오후 4시 ~ 6시)

▶ 신기문 선생과 송강선생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i-TV, SBS 출연함)

**평생 직업! 특강반에서는
직접 영입할 수 있게 속성강의**

오행의 기초부터 완벽한 이론 및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자격증, 취업보장)
“ARS 대동청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미달 접수 5명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9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부